미술해설사 양성 시민 열기 가득

북구청·전남대, 30명 '도슨트' 수업 … 전문가들 현장 노하우 전수

8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에서 수강생들이 광주시립미술관 채종기 학예실장으로부터 전시기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독일의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 '기도하는 손'이 감동적인 것은 학비를 벌기 위해 미술을 포기하고 일을 한 친구의 거칠어진 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8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본격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립미술관 채종기 학예실장의 설명을 듣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들은 도슨트 (docent·전시해설요원)를 꿈꾸는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북구청, 전남대 평생교육원이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북구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시민 도슨트 양성 과정이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비엔날레를 치르면서 매회 60여 명의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을 선보였지만 자격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 전공 재학·졸업생으로 한정했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자체 도슨트 과정이 개설됐으나 이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광주의 문화 인프라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 대상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인 것이다. 또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대학교, 우제길미술관 등 지역 공공 문화공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강생들에게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의욕적인 시도다.

이날 교육은 도슨트들이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가령 큐레이터가 오는 2010년 '5월'을 주제로 기획전을 열었다면 2010년이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진 해라는 것을 알고, 전시 주제와 작품의 특성을 보충해 주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채 학예실장의 설명을 꼼꼼하게 노트에 받아 적는 수강생 가운데에는 역시 미술 전공자들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어국문학과, 수학과, 영어영문과 졸업생과 전남대박물관 전시해설사, 전남대 시간강사 등 다양한 전공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연령대는 주로 20~30대였다. 최근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홍성호(39·광주시 북구 매곡동)씨는 "현대 미술이 갈 수록 난해해지고 있어, 관람객과 작품의 거리를 줄여주는 도슨트의 역할도 덩달아 중요하게 됐다"면서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슨트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은 8월28일까지 8주간 92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우제길미술관 변기숙 학예실장이 교장 격인 전담강사를 맡았고 서울삼성리움미술관 한주연 코디네이터, 전남대 장석원·정금희 교수, 제7회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인 박성원씨 등이 강사로 나선다. 박물관, 미술관 도슨트 실습 등 현장 중심의 토론식 강의가 이뤄진다.

또 강의가 마무리되면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도슨트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합격생들은 북구청갤러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지역 갤러리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전공에 상관없이 광주비엔날레 도슨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변기숙 전담강사는 "지역의 전문 도슨트를 키워내기 위해 이론과 실습이 겸비된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여름밤 무더위 공포영화로 '싹~'

클래식 음악 감상실 베토벤

매주 토 히치콕 걸작 감상회

'무더위를 날려 버릴 스릴러 영화의 세계로'

스릴러 영화의 대명사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사진〉의 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은 오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알프레드 히치콕 걸작 영화 감상회'를 연다. 현대 스릴러 영화의 전범을 제시한 감독으로 꼽히는 히치콕은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본 통찰력 있는 영화작가이자 최고의 테크니션이다.

12일 상영되는 '레베카'(1940년작)는 히치콕의 할리우드 입성작으로 1940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다. 사고로 부인을 잃은 부호가 두번째 부인을 맞지만 전 부인 레베카의 흔적이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레이스 캘리와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연을 맡은 '이창'(1954년작)은 이웃집을 망원경으로 들여다 보던 한 남자가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26일 만나는 '현기증'(1958년)은 킴 노박의 뇌쇄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작품으로 사건 의뢰인에게 연정을 느낀 사립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밖에 '사이코'(1960년작)는 여주인공 마리온이 샤워 도중 노만 베이츠에 살해당하는 장면 등 명장면이 즐비한 작품이며 '새'(1963년작)는 멜라니가 보데가 만에서 새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 등 충격적인 장면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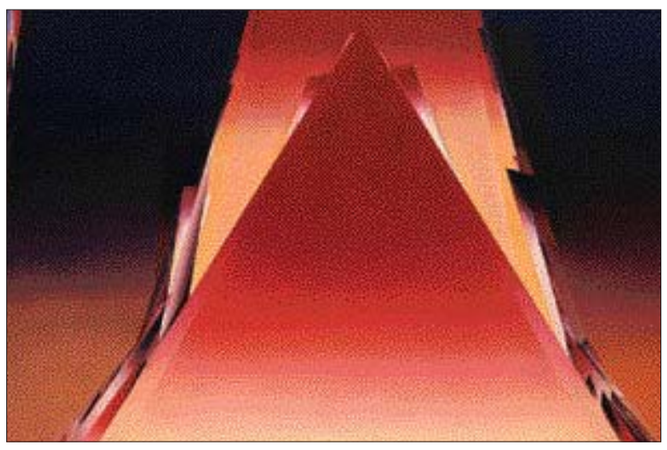
문의 062-220-06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제길씨 '한국 추상회화 1958~2008'전 참가

9일 ~ 8월23일

서울시립미술관



'Light 2007-10B'

서양화가 우제길씨가 9일~8월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리는 '한국 추상회화 1958~2008'전에 참가한다. 현대미술가협회, 모던아트협회 등이 창설된 1957년 이래 최근까지 한국 화단에 앵포르멜(informel·비정형 미술) 반향을 일으킨 추상회화 반세기의 역사를 짚어보는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는 초창기 앵포르멜의 선두 주자인 박서보를 필두로 하종현, 김수자, 이강소, 곽훈, 이두식, 윤형근, 정상화, 하인두, 방혜자, 김기린, 유희영 등 44명의 작품 82점으로 꾸며진다.

작품의 창작 기법과 특성에 따라 '공간과 물성' '행위와 유희' '반복과 구조' '색면과 빛' 등 4가지 섹션으로 나눠 전시가 진행되는데 우씨는 마지막 섹션에 참여한다. '색면과 빛'은 색과 빛을 소재로 추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우씨는 곧게 뻗은 빛이 서로 만나고 흩어지는 미묘한 색의 변화를 표현한 'Light' 연작을 선보인다.

우씨는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비엔날레, 현대국제 미술전에 참가했으며 광주시민대상(예술부문), 현산문화상, 한국미협이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오광록기자 kroh@r

'문화수도 포럼' 출범

30여명 참가 …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육성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맞춰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수도 포럼'이 출범한다.

스토리 텔링은 애니메이션, 광고, 게임, 방송, 캐릭터, 모바일 등에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문화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을 키우는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문.

8일 (사)한국지역문화콘텐츠개발원에 따르면 문화수도 포럼이 10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창립 총회와 포럼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포럼에는 김연수 순천강남여고 교장, 탁인석 한국폴리텍 V대학 고창캠퍼스 학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문화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문화수도 포럼은 향후 ▲시민참여 이야기 자원 개발 ▲아시아 스토리텔링 연구소(원) 설립 지원 ▲문화콘텐츠 벤처기업, 지주회사 설립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창립기념 포럼에서는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장의 '정보혁명시대 지나고 '이야기 혁명시대' 도래한다'는 제목의 기조발표에 이어 조은정 서울벤처 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도시 이미지와 캐릭터' 등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경매社 '필립스 드 퓨리'

한국 현대미술품 다룬다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 중 하나인 필립스 드 퓨리가 올해부터 한국의 현대 미술품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방한 중인 필립스 드 퓨리 영국 사업본부의 로드맨 프리맥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비드 시클리티라 패러랠미디어그룹 회장의 '코리안 아이(한국의 눈)' 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올해부터 한국 현대미술품의 전시와 경매를 결합한 사업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평론가 성기완씨 '미디어 특강'

대중음악 평론가이자 밴드 '3호선버터플라이'의 멤버인 성기완〈사진〉이 오는 12일 오후 3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미디어 특강'을 갖는다.

영화 '라디오 데이즈' '플라이 대디'의 음악감독 등 음악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 씨는 '영화음악과 만나는 한여름의 로망스'라는 주제로 영화음악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 성 씨는 영화에 감동과 재미를 더해주는 영화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